

Being Transported: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September 21, 2023

Aloha MPC 'Ohana,

It's September 21,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The Mayflower.

The Santa Maria.

The Endeavor.

The Thaddeus.

The Ha'aheo o Hawai'i.

The Lurline.

You might recognize some of those names. Or, if you're like me, you might have to ask Google or Siri for a little help. But in either case, each of the aforementioned was the name of a ship. The ship that brought the Pilgrims to Plymouth Rock. The flag ship which Columbus commanded in 1492. The ship that Lieutenant James Cook captained on his first voyage to the South Pacific. The ship that transported the first Christian missionaries to Hawai'i nei in 1822. The royal yacht of which King Kamehameha II was so proud. The Matson luxury liner on the San Francisco-to-Honolulu run at the apex of trans-Pacific passenger travel during the last century. In the maritime world, these are some important names.

While on vacation in Rarotonga last month, I learned the revered names of some other historic vessels. Takitumu, Te Arawa, Mataatua, Aotea, Kurahaupo, Tokomaru, and Tainui -- those were the names of seven great voyaging canoes which left the island of Rarotonga about 600 years ago, carrying the very first Polynesians (the Maori) from that island to the place which we today call New Zealand. Those seven canoes, in other words, are together sort of like the Mayflower of New Zealand.

And their names are remembered with reverence -- both in Rarotonga, from which they departed, and in New Zealand, where they made landfall. In fact, many Māori people in New Zealand today can still tell you which one of those seven canoes their ancestors sailed on. Because the names of those seven canoes went on to become the names of the seven major Māori clans in New Zealand. So that one might say something like, "We are Takitumu people, because our ancestors were brought here by that canoe," etc.

All of which I find personally interesting. But that's not why I mention it today. Instead, I mention it because I'm mindful that the Christian church is sometimes equated with a boat too. Already in the Book of Second Peter, in fact, the church was being described metaphorically as "an ark" -- an ark like Noah's ark, an ark of salvation (1 Peter 3:18-22). And here's what I think that means:

I think the church is sometimes compared to a boat (or ark, ship, vessel, vaka, wa'a, etc...) because like a boat, the purpose of "church" is to *transport* people.

When the Word of God is proclaimed in church, the purpose of that is to transport people from a state of doubt or discouragement or despondency to a new place of faith and hope and love. When songs of praise are sung, the purpose of that is not to entertain but to transport our hearts up into the courts of praise. When we pray together in church, the purpose of that is to carry (ie. transport) our concerns and our thanksgivings up to heaven's throne of grace. And when the worship service ends with "amen," that's our signal to be transported by the Holy Spirit out into the world to love and serve the Lord there 24/7.

The point is, what we do at church is not meant to leave us unmoved. It is all meant to transport us -- really, to propel us. To propel us upward in praise, forward in faith, and outward in mission.

So , what if each week we came to church anticipating that and nothing less, excited to see "where God will take me today." Because when church is approached in that spirit, I think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how about you?

Me ke aloha,
Pastor Ron

운송 중: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9월 21일은 또 다른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메이플라워.

산타 마리아.

노력.

타데우스.

하아헤오 오 하와이.

룰라인.

당신은 그 이름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와 같다면 Google이나 Ciri에 게 약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앞서 언급한 각각의 이름은 배의 이름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을 플리머스 록(Plymouth Rock)으로 데려온 배.

1492년 콜럼버스가 지휘했던 기함.

제임스 쿡 중위가 첫 번째 남태평양 항해에서 선장으로 삼았던 배.

1822년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하와이 네이로 수송한 배.

카메하메하 2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왕실 요트입니다.

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 노선의 Matson 호화 여객선은 지난 세기 동안 태평양 횡단 여객 여행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해양 세계에서 이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이름입니다.

지난 달 라로통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나는 다른 역사적인 선박의 존경받는 이름을 배웠습니다.

타키투무(Takitumu), 테 아라와(Te Arawa), 마타투아(Mataatua), 아오테아(Aotea), 쿠라하우포(Kurahaupo), 토코마루(Tokomaru), 타이누이(Tainui) - 이들은 약 600년 전 라로통가 섬을 떠나 최초의 폴리네시아인(마오리족)을 그 섬에서 라로통가 섬으로 실어 나른 일곱 척의 항해용 카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질랜드라고 부르는 곳.

즉, 그 7개의 카누는 마치 뉴질랜드의 메이플라워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출발한 라로통가와 그들이 상륙한 뉴질랜드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기억됩니다.

사실, 오늘날 뉴질랜드의 많은 마오리족은 자신의 조상이 탔던 7개의 카누 중 어느 배를 탔는지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일곱 개의 카누의 이름이 뉴질랜드의 일곱 주요 마오리 부족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 카누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타키투무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오늘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대신에 나는 기독교 교회가 때때로 배와 동일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언급합니다.

사실, 이미 베드로후서에서 교회는 은유적으로 "방주", 즉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방주, 구원의 방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베드로전서 3:18-22).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생각에 교회는 때때로 배(또는 방주, 배, 선박, vaka, wa'a 등...)에 비유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처럼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_수송하는_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 그 목적은 사람들을 의심, 낙담, 낙담의 상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그 목적은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찬양의 궁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목적은 우리의 염려와 감사를 하늘 은혜의 보좌까지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아멘"으로 끝날 때,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 세상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신호입니다.

요점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놔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를 수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으로 우리를 위로, 믿음으로 앞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밖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기대하며 교회에 간다면 어떨까요?

그런 정신으로 교회에 접근할 때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알로하,

론 목사